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 성체조배 | 병자 성사 봉 성체 | 2주일 전 신청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 | 혼배 성사 | 3개월 전 신청 | | |
| | 향심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 하느님의 뜻영성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 | | | | |
| 주일 학교 | | 매주일 오전 11:00-12:15 | 한국학교 | 토요일 오전 9:40-12:40 | | | |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 [제 1독서] 지혜 18,6-9
[화답송]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이,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히브 11,1-2,8-19<또는 11,1-2,8-12>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루카 12,32-48<또는 12,35-40>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32 | 봉헌 219 511 | 성체 156 163 | 파견 16 |
| | 11시 미사 | 입당 32 | 봉헌 219 511 | 성체 156 163 | 파견 16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연중 제 19주일(8월 11일) | | 연중 제 20주일(8월 18일) | | 연중 제 21주일(8월 25일) | |
|--------|-------------------|-----------|-------------------|----------|-------------------|-----------|
|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김글라라(순희) | 전베로니카(진영) | 이바로로(명국) | 조레지나(선덕) | 임루카(승원) | 이엘리사벳(자영) |
| 제 1 독서 | 이바로로(명국) | 이베드로(기만) | 강요한(신호) | 정요한(석준) | 최본도(환준) | 심미카엘(태규) |
| 제 2 독서 | 정스텔라(애리) | 이골롬바(정연) | 김안젤라(영선) | 손리디아(정욱) | 허세실리아(홍숙) | 심헬레나(승화) |
| 보편지향기도 | 독서자 | | 독서자 | | 독서자 | |

오늘의 강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무한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앞만 보며 달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뛰어온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이었는지 또 앞으로 가야할 길은 목적지를 향한 바른길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목적지와는 다른 엉뚱한 곳에 이르러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웰빙이라는 개념에 푹 빠져 건강, 건강을 외치며 살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글에서 “웰다잉이란?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한국고령사회교육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루카12,40)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복음을 통해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새로 짓고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고 스스로를 위로하였지만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온갖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는 이에 대해서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루카12,33)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되도록 많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베풀면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마음 때문에 즐겁고, 받는 사람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베푸는 삶은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사는 삶이며,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깨어 있는 종” 처럼 사는 삶이며,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일하고 있는 종!” 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따라나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좀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8월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시기, 농민들은 장마철에 지속되었던 장대비와 태풍의 폭우로 시련을 겪었던 농작물이 이제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잘 여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발생하는 병해충 때문에 농촌에서는 피해를 줄이고자 각종 방역 작업을 합니다. 주인의 건강을 지키고자 방역 차량이 동네 곳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지킨다면, 무더져 가는 사람들 내면의 양심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교통 관련 분야에서 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즉 교통경찰이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하면 법규를 지키는 척하다가, 단속이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사고율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생명존중의 마음입니다.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는 신호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면 끝까지 기다려 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양심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믿음이 무더져 가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지혜 18,8) 즉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같은 하느님의 법으로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이 갈리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독서인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히브 11,13)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서 진정한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

다.” (루카 12,33-34)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 개의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한 종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양심이 있으며, 하느님의 법을 지켰고, 하늘나라 하느님의 집에 마음을 둘 줄 아는 슬기로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 작업을 잘하여 우리의 믿음이 좀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둘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곳에 항구히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

글_고 최민순 신부 / 그림_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주님,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별을 베풀어주소서.(1)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갓습니다”로 시작되는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은 노래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무엇이든 한 처음의 추억은 신 새벽의 처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눈, 첫날밤처럼 첫 키스의 추억이야말로 그대와 나,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의 부싯돌끼리 부딪쳐 일어나는 날카로운 섬광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주셨지만, 첫 번째 기적은 공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장면입니다. 혼인 잔치 도중에 성모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자 주님은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이르시자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하시고 그것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맛을 본 사람이 신랑을 불러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하고 감탄합니다.

얼핏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환자를 낫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는 극적인 기적과는 달리 첫 번째 기적은 이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행하신 지극히 사소하고 사적인 마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제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보에서 최고의 기도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을 구하는 엿가락의 기도’라고 잘난 체하였지만 제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막무가내식 때 기도입니다. 성모님께 목주기도를 드릴 때면 저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창피도 없습니다.

누가 엄마에게 고상하게 매달리니까, 성모님은 주님과 달리 결혼도 하셨고, 아이를 낳으셨고, 산후 조리도 못 하고 이 집트로 피난까지 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고생하셨고, 열두 살 되던 해에는 무단가출한 문제아들 때문에 사흘이나 “줄곧 찾아 헤맸는데도”(루카2,46) 막상 찾아내어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라고 한마디 하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라는 불효막심한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린 아드님이 입었던 “위에서 아래까지 혼술 없이 통으로 짠”(요한

19,23)옷까지 길쌈하며 지켜보아야 했던 비극의 여인이셨습니다.

5년에 걸친 투병생활 중에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글을 쓸 수 없는 허기였습니다. 피어나지 않으면 꽃이 아니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새가 아니듯, 글을 쓰지 않으면 저는 더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작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극한의 정신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항암치료로 지칠 대로 지친 육체와 황폐한 정신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불가능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가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이 제일 슬펐습니다. 저는 작가로 죽고 싶지, 환자로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성모님께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엄마. 저 글 쓰게 해주세요. 앙앙앙앙, 아드님 예수께 인호가 글 좀 쓰게 해달라고 알려주세요. 엄마, 오마니! 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드님은 오마니의 부탁을 거절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앵앵앵앵, 오마니, 저를 포도주로 만들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잔칫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좋은 포도주로 만들게 해주세요. 아드님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루카 2,48)하고 혼을 내세요. 아이고 어머니, 어무니, 으잉 으잉잉잉.”(계속)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고통, 죽음과 최후의 대면을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구는

동요 의식과 동정과 지지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계속 희망을 간직하도록 도와달라는 탄원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7항

가톨릭전례

마리아 -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기에, 성인성녀들에게 도우심을 청하고, 그분들의 삶을 닮고자 노력합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성인들의 통공을 믿기에 이런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다른 성인들처럼 공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성모님께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구원의 협력자” 라는 칭호를 드리고 특별한 공경을 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성모님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다른 성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지니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1) 그리스도의 어머니(또는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는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 참으로 필요했음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 가축을 해서 타락한 생활 속에서 헤매는 아들이 있다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릴 부모는 없습니다.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곳이 범죄자 소굴이건 감옥이건 부모는 찾아갑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도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겠다고 결심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여려는 인간의 협력이 없으면 안됩니다. 앞의 예에서 부모가 어렵게 아들을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들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을 함께 겪는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고집을 피우고 부모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구원도 일방통행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 잉태하시고 낳아주시실 여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날마다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천년 전 단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길이 결정적으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여 잉태하시고 낳아주시신 성모 마리아 역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모님은 다른 성인성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2) 교회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활동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시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느님의 강생에 온전히 협력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탄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이셨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 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19,26).

또한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기도로 교회의 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이시다. ... 왜냐하면 저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963항, 교회교리서 1809항)

3) 성모 마리아 공경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2천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종말에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시는 성모님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느님 곁에 계시게 된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옛날부터 온갖 위험과 곤경 속에서 성모님의 보호 아래로 달려 들어가 도움을 간청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데에 있어서 완전한 협력자이시기에, 그분을 특별히 공경함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신부 인천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 날짜 | | | 지향 | 봉헌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 | | | |
|----------|---|-----------|------------|-----------|-------------------------------|------------------------------------|-------|---------|------|---------|
| 8월 11일 일 | 연 | 김중화 | | 정데레사(혜경) |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 | | | |
| | 연 | 이성원 | | 정데레사(혜경) | | | | | | |
| | | 연 | 정벤자민(대업) | | 정데레사(혜경)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 연 | 이마르코(재상) | | 가족 | 미사참석인원 | 82 | 216 | 40 | 338 |
| | | 연 | 정아네스 | | 가족 | 헌 금 | \$528 | \$1,708 | \$71 | \$2,307 |
| | | 연 | 윤바오로(광의) | | 가족 | < 교무금 > \$3,248 | | | | |
| | | 연 | 윤바오로(광의) | | 찬미성가대 | 최환준(1-6) 김상실(9-10) 유한섭(7-9) 김순이(8) | | | | |
| | | 연 | 윤바오로(광의) | | 김데레사 | 전숙희(8) 김관숙(8) 채용분(8) 황정희(8) | | | | |
| | | 연 | 황빈센트(익주) | | 황아그네스(현숙) | 남금지(8) 육승주(7-8) 최명숙(7-8) 황국명(5-7) | | | | |
| | | 연 | 부모님 | | 원젬마 | 조진석(5-8) 이병열(8) 천종욱(8) 정진희(8) | | | | |
| | | 연 | 송소피아(성은) | | 안마리아(은순) | 허동원(8) 지기재(1-12) 장찬호(7-9) 임윤택(8) | | | | |
| | | 연 | 박순천 | | 황안나 | 김영희(8) 이명란(8) 전문자(8) 김옥녀(8) | | | | |
| | | 생 | 본당신부님 | | 찬미성가대 | < 성소후원금 > \$120 | | | | |
| | | 생 | 본당신부님 | | 5구역원 | 김순이(8) 전숙희(8) 채용분(8) 조진석(5-8) | | | | |
| | | 생 | 성루카 | | 전례성가대 | 정진희(8) 임윤택(8) 이명란(8) | | | | |
| | | 생 | 조마리아 | | 전례성가대 | < Bishop's Appeal > - | | | | |
| | | 생 | 육아오스딩 | | 육아가다 | < 지봉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 | | |
| | | 생 | 유케빈 | | 유데레사 | * 목표액 \$48,000 | | | | |
| | | 생 | 전클라라(지혜)생일 | | 임안젤라 | * 총 약정 \$53,450 | | | | |
| | | 생 | 박헬레나 | | 5구역원 | * 총 납입 \$52,450 | | | | |
| | 생 | 유베로니카 | | 5구역원 |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 | | | | |
| | 생 | 김요셉(청남) | | 5구역원 | 강수영, 최명숙 | | | | | |
| | 생 | 박마리아(영자) | | 찬미성가대 |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 | | | | |
| | 생 | 전데레사(윤자) | | 언니 | 육승주, 강수영, 최명숙 | | | | | |
| | 생 | 서데레사 | | 김데레사 |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 | | | |
| | 생 | 이안나 | | 김데레사 |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 | | | |
| 8월 13일 화 | 연 | 최베드로(휘종) | | 가족 | * 봉헌액 \$291,545.28 | | | | | |
| | 생 | 유마리아/이마리아 | | 김데레사 | | | | | | |
| | 생 | 고혜련 생일 | | 황안나 | | | | | | |
| 8월 14일 수 | 연 | 부모님 | | 이바오로 | | | | | | |
| 8월 15일 목 | 연 | 김사비나 | | 채데레사 | | | | | | |
| | 연 | 박마리아(복임) | | 이아네스(명란) | | | | | | |
| | 연 | 염말가리다(명선) | | 이아네스(명란) | | | | | | |
| | 생 | 조마리아(상희) | | 하늘의문 Pr. | | | | | | |
| | 생 | 이베네타(보람) | | 이야고보/카타리나 | | | | | | |
| 8월 16일 금 | 연 | 형제/자매 | | 이바오로 | | | | | | |
| 8월 17일 토 | 연 | 이베로니카 | | 자녀들 | | | | | | |

~~~~ 오늘 간식은 허수원 로렌조/세실리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성모승천대축일(의무축일) 미사 안내  
8월 15일(목) 저녁 8시

◆ 오클랜드 교구 가톨릭 묘지 축성식  
일시 : 8월 25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1051 Harder Rd. Hayward, CA  
\* 사목회의는 축성식 후에 있습니다.

◆ 약정하신 2013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구역장회의 : 8월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평협회의 : 8월 18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뜨개질사랑회 : 8월 18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3호실

◆ 독서클럽 모임  
8월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9월 도서 : 그러니,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라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서중부 여성 제 9차 꾸르실료(8/15 - 8/18)  
참가자 : 이경란 베로니카, 윤윤선 루시아, 최수영 분다  
\* 참가자와 봉사자를 위한 빨랑카 접수 중  
문의 및 접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일시 : 9월 8일 오후 1시  
지도 : 본당 신부님  
접수 : 친교실

| 8월 구역모임 |              | 필리피서 3-4장   |
|---------|--------------|-------------|
| 1 구역    | 8월25일(일)5시반  | 최재준 토마스 덕   |
| 2 구역    | 8월25일(일) 6시  | 지영남 요한 덕    |
| 6 구역    | 8월17일(토) 6시  | 조상희 마리아 덕   |
| 7-2구역   | 8월25일(일)12시반 | 교육관 106호실   |
| 9 구역    | 8월24일(토) 6시  | 허순구 라우렌시오 덕 |

◆ 가톨릭 성서 모임  
\*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창세기부터 9월에 시작  
\* 기혼남녀반  
- 월 또는 화 오전반 & 저녁반(창세기)  
봉사자 : 조마오로 수녀님  
- 목 또는 금 저녁반(탈출기) : 창세기를 마친 분들에 한함  
봉사자 : 본당신부님  
\* 접수 : 친교실(오늘 마감)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주일학교 미사 : 11시 친교실**  
**주일학교 계약 : 9월 8일**  
**주일학교 등록 :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개강 후 10/26까지)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